

한국불교 중흥의 새바람 상월선원



논설위원 칼럼

이 병 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종파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타락한 고려 불교계 상황에서 원묘국사 요세 스님과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주장하여 전개한 백련결사와 정혜결사가 없었다면 한국불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등불 역할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결사의 정신과 힘이 이어져 왔기에 조선조 500년 동안의 가혹한 억압·척박 정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그 힘든 세월을 견디고,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복속 시도를 어렵게 버텼던 한국불교 앞에는 민족해방 뒤에도 숱한 난관이 가로막고 있었다. 다시 숨을 크게 쉬고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야 하지만, ‘협찬산중·오리무중’이라는 말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어둡고 험난한 장애가 놓여 있어서, 500년이 훨씬 넘도록 기운을 소진한 불교가 자칫하면 그냥 쓰러져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다. 그 힘은 1947년 경북 문경 봉암사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펼친 ‘봉암사 결사’에서 발원한 것이다.

현대 한국불교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비구·대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출범한 뒤로도 종권 쟁탈전이 끝없이 이어져서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이 채 1년을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총무원 직원들은 아예 사직서를 써서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있었다. 바깥세상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눈은 ‘짜유를 일삼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차갑기 짝이 없었다.

1994년 봄 개혁불사 이후에는 다행히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예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종단의 안정을 흔들며 혼란을 조성하는 일을 업(業)으로 삼는 무리들이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불기 2563년 한국불교계에는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사’에 앞으로 부처님을 모시게 될 사찰 부지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상월(霜月)’이라는 절연한 의지를 담은 천원을 꾸려 아홉 분의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간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은 상월선원 개원과 동안거 입재 소식에도 “결사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비아냥대지만 오히려 이들이 아말로 ‘결사와 수행’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상월선원 동안거 입재를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

문에서 “부처님, 당신이 품어 넓고 그들이 풍성한 나무 한 그루로 깨달음을 이룰 자리로 삼으셨듯이 저희도 이제 날찍한 천막 한 채로 깃들 자리를 삼았습니다. 저희에겐 이 천막이 보리수가 될 것입니다. 서릿발 같은 기상에 달을 벗 삼을 마음만 갖춘다면 당신의 길에서 어찌 물러남이 있겠습니까?”라며, “첫째,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둘째,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셋째, 웃은 한 발만 허용한다. 넷째,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다섯째,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묵언한다. 일곱째,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는 청규를 정하고 미리 총무원을 찾아가 사전 제적원을 제출한 그 군은 결의 앞에 누구든 고개를 숙이며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동안거 결제에 앞서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을 때린다. “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정진하는 것만이 침체된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길이다. 동안거 한 철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스님의 말씀대로 “동안거 한 철, 하안거 한 철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는 다짐을 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점차 늘어나리라 기대한다. 이처럼 부처님 제자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거대한 물꼬를 트게 될 상월선원 동안거, 한국불교의 역사를 바꾸는 ‘천년 만에 일어나는 큰 사건[一千年來一大事件]’이 아니겠는가.

beneditto@hanmail.net

본각 스님의 녹색불교



법보 시론

유 정 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국제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항상 환경문제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 환경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1순위는 경제성장, 일자리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국가지도자들이 장기적인 과제인 환경문제보다 임기 내 국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제문제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구적 환경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국제적 약속에 떠밀려 마지못해 실행하는 듯한 양상을 띠게 된다.

2020~30년까지 10년간 지구 기온은 1.5도로 묶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떠다니는 한반도 몇 배 크기의 쓰레기섬과 비닐·프라스틱 문제는 어떤가. 11월5일 전국 153개 국가의 과학자 1만1000명이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지구적 환경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비정부조직(NGO)이라면

단연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종교조직이다. 각 종교가 주장하는 종교인 숫자를 합치면 한국의 인구를 넘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큰 조직이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률과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환경시민단체들의 사회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뭉치뭉치 해도 가장 큰 조직인 종교, 그 중에도 불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책임도 막중하다.

그래서 이제 녹색불교가 되어야 한다. 불교가 환경생태 등 녹색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불교 스스로 녹색적 가치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생태사회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는 녹색불교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녹색사찰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찰 스스로 일화용품과 비닐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대안에너지를 실천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일이다. 또한 사찰의 신도들로 하여금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실천과 지역사회에서 환경실천을 하게하는 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부와 수행, 명상을 통해 소육식족의 소확행과 행복을 누리며, 유기농식품을 구매하고 지역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 협동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이 중심이 아니라 생태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한 녹색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녹색불교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녹색사찰

운동의 제1호 사찰로 출선하고 나선 분이 금륜사 주지이자 제12대 전국비구니회 회장으로 선출된 본각 스님이다. 본각 스님은 금륜사 내에 종이컵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군장병 간식을 지원할 때도 종이봉투를 사용하고, 떡도 랩이나 비닐에 싸지 않고 반드시 그릇을 가져와야 담아준다. 초기에는 진동이 있었지만 강력히 실천하다보니 신도들은 아예 개인통을 갖고 절에 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나아가 신도들이 ‘우리절은 녹색사찰’이라며 자부심을 느끼는 단계가 되었다.

이러한 강력하고 모범적인 본각 스님의 실천이 힘이 되어 이후 울산 백련사, 은평 열린선원, 울산 여여선원, 장성 천전암, 의정부 석림사, 울산 여여선원, 태능 법장사, 강서구 반야정사, 천안 성불사, 파주 약전사, 오산 대각포교원 등이 녹색사찰을 약속하고 실천 중이고, 이후 구미 화엄암사와 의정부 화통사도 녹색사찰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10월13일 전국비구니회장 취임 일성도 환경문제의 실천을 비롯한 정의와 사회적 과제에 눈감을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당일 대화용 도시락통에 떡을 정성껏 담아 선물로 나눠주어 참여자들에게 각별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한국 스님의 절반인 비구니스님들이 생명에 대한 각별한 감수성을 기반으로 생활밀착적인 실천을 널리 전개해 실질적으로 녹색불교를 선도하길 바란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밝은 대안과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

ecogil21@naver.com

사 설

“불광 법회만은 열어야 한다”는 절규 외면 말라

‘1978년 그곳은 논밭이 대부분인 허허벌판이었다. 걷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밭을 디디면 밭이 푹푹 빠질 만큼 질푼했고 논밭이 대부분이었다.’

광덕 스님의 포교전법 상징인 ‘불광사·불광법회’가 들어서기 전 잠실 부지의 모습은 이와 같았다. 광덕 스님이 2만여 불자들의 십시일반 지극한 정성을 모아 1982년 8월15일 범요식과 현판식을 갖춘 뒤 본격적인 포교전법의 활동을 시작한 도량이 불광사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오늘의 불광사 법당에서 일요법회가 중단됐다. 충격이다. 불광사가 광덕 스님의 전법도량을 상징한다면 일요법회는 스님의 포교원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불광사·불광법회는 1974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는데 벌써 2개월째 법회가 끊어졌다. 불광사 일요법회가 중단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충격은 한층 더한다. 10월 말, 외부 조정법사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려 했으나 박홍후 법회장 측 신도들의 목탁시위와 고성으로 중단됐다고 한다. 조직적 방해라 볼 수 있는 이 대목에서 부처님 제세 당시 교단을 장악하려

했던 데바닷다의 삿된 욕심을 떠올리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광덕 스님의 포교원력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법회가 없다면 더 이상 도량일 수 없지 않은가.

불광사의 역대 불광법회장들은 11월22일 ‘불광형제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광덕문도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행전법도량인 불광사·불광법회의 핵심은 일요법회”라고 강조하면서 “일요법회를 다시 봉행할 것과 감정대립을 내려놓고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기도 정진하자”고 했다. 호소를 넘어 선 절규에 가깝다. 그러면서 “불광사 회장단과 명동회의 동의 없이는 법사스님을 모실 수 없다는 박홍후 법회장 측의 억지 논리를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불자로서의 순수성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일리 있다고 본다.

불광법회장들의 호소문은 지극히 불교적이고 상식적이다. 일요법회를 정상화 할 것과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정진하자는 것으로 불광사·불광법회의 전법을 연 광덕 큰스님의 발원과도 맥이 닿는다. 불광사 신도라면 불광법회장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화성사건’ 유가족 위한 지속적 치유 절실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제가 11월23일 효행본찰 용주사에서 엄수됐다.

위패단에 봉안된 희생 영가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였으며 누군가의 딸이었다. 희생 영가들의 억울함과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를 가족들의 답답함은 최근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범인의 유전자 확인과 자백에 따라 그 전모가 드러나며 풀리기 시작했다.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몰랐기에 30여년이 넘는 세월을 회한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이었다. ‘화성사’가 범죄의 고장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는 비난 여론 때문에 범인만이라도 찾아달라는 목소리도 마음 놓고 드러낼 수도 없었던 유가족이다. 천도제 중 실종 초등학교생의 유가족은 “지난 세월 딸이 쓴 줄도,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고 우리 가족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

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은 우리를 두 번 죽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화성 시민들 또한 울분을 삼키며 살인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이다.

저간의 상황이 이러했기에 화성을 대표하는 효행본찰이자 대한불교조계종의 제2교본사인 용주사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 천도제를 지낸 것은 매우 의미 있어 보인다. 이에 한 가지 더 당부하고자 한다. 유가족들과 화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33년 동안 모든 유가족들의 가슴에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아픔과 고통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듬을 수 있는 상담과 가피를 위한 치유의 장을 용주사 또는 인근 사찰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상시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

1988년 5월 16일 창간	법보신문	THE BEOPBO SHINMUN
발행인 김 형 규 광 고 노 훈	편집인 이 재 형 인 쇄 임 체 형	구독신청 : 02-725-7010 광고접수 : 02-725-7013
(우)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A동 1501호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구독료 : 월 5천원 /년 6만원		독자 여러분의 뉴스제보를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 www.beopbo.com 대표메일 : webmaster@beopbo.com FAX : 02-725-7017 02-725-701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서울 047229호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문의전화:02)585-1141 www.twotwocom.co.kr



철저한 사후관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금강장사2.0

new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죽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 등 쉽고 다양한 기능
SMS(문자)서비스 기능지원(충전,조회 바로가음)
200여 종류의 출력양식지원
나이별 편지발송 기능을 내장한 막강한 생일관리 기능지원
국내의 모든 우편물 양식을 지원하는 우편물 발송기능지원
신도의 효율적 관리의 핵심, 행사관리(인등,연등)지원



사찰홈페이지는 사찰서비스전문기업에서!



홈페이지

사찰홈페이지전문 제작,관리
02)585-1141

사주 프로그램

국내최초 전문역학프로그램
02)585-1141

최고의 보급률! 1300만가지 사주데이터!



투투컴퓨터 검색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쳐보세요! 새롭게 변한 『금강장사2.0』을 보실 수 있습니다.